

# “부처님 가르침 행복의 길 제시”

##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 불교와 윤리

네피의 작은 왕국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나 정각(正覺)을 이룬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난 2천5백년 동안 동양의 무수한 사람들에게 인생의 지침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동양이란 지역적 범주에서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부처님은 신분과 인종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얻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길을 밝힌 것이다.

아래에 불교 경전에 전해지는 가르침을 인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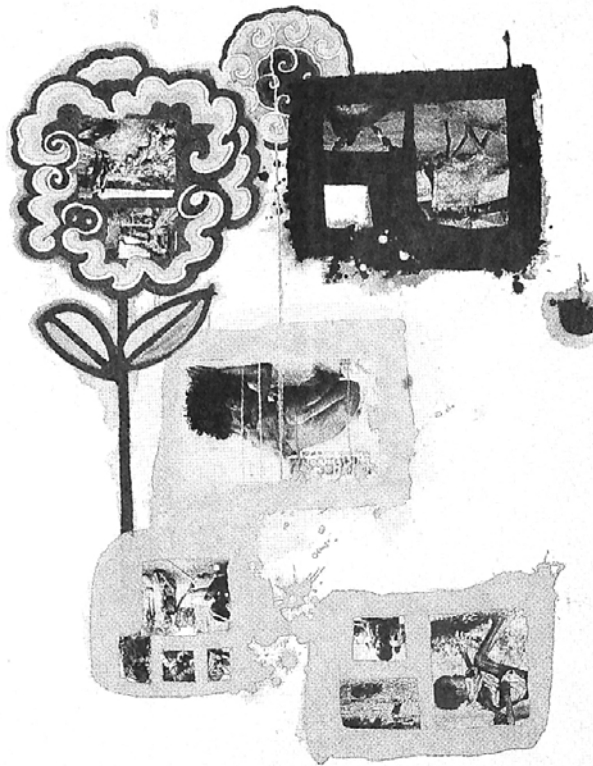
증오는 결코 증오를 멈추게 할 수 없다. 사랑만이 증오를 멈추게 한다. 모든 옛 가르침이 이 점을 강조했다.

어느 전투에서 천명의 적을 굴복시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도 모르게 자기를 굴복시킨 사람도 있다. 이 중 진정한 승리자는 후자이다.

가속속 불보다 더 뜨거운 불은 없다.

언젠가 부처님이 숲속에 거거할 때, 어느 재가신자의 외아들이 죽었다. 그 아이의 인가 친척들이 방대 장례를 치르고 새벽녘에 옷이 흠뻑 젖은 채 지나가다 부처님과 마주쳤다. 부처님이 어디 갔다 오느냐고 묻자 아버지가 대답했다. “부처님, 하나밖에 없는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정말 명랑하고 사랑스런 아이였 습니다.” 부처님이 말했다. “사랑스런 걸모습이 주는 즐거움에 한눈 팔고, 괴로움과 늙어감에 어쩔줄 몰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신(死身)의 수중에 떨어지고 만다. 그러나 밤낮으로 깨어 자신을 경계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외양에 이끌리지 않고, 고통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으며, 극복하기 매우 어려운 죽음의 유혹을 떨친다.

어느 불행한이, 부처님이 악업(惡業)을 선업(善業)으로 갈아아 한다고 가르친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가 욕을 했



○부처님의 가르침은 개인의 해탈을 추구하면서 신분과 인종의 벽을 넘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을 얻고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은 순연철교수(동국대의 회화) '유니세프 지장보살'.

## 개인해탈·인류공영 지침...인종초월 세계로 확대

증오보다 더한 악은 없다. 육체에 끌려 다니는 삶보다 더한 고통은 없다. 마음의 평화를 능가하는 행복이란 없다.

이 세상에서 착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 이 세상에서 격정을 끌고 욕망을 극복하는 것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이 기우를 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최상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

행복이란, 무소유(無所有)를 깨닫고 진리를 구하여 지혜에 도달한 사람의 것이다. 가진 자가 겪는 저 고통을 보라. 스스로 사슬에 묶인 자가 거러에 가득하다.

이 세상의 온갖 고통과 슬픔은 모두 애욕(愛慾)으로 인해 일어난다. 따라서 이 땅에 대한 애욕을 버린 자는 자유롭고 행복하다. 만일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면, 이 세상의 그 무엇에도 애욕(집착)을 가지지 마라.

속마음을 진심(眞心, 노하는 마음)을 품지 않고, 유형(有形)·무형(無形)의 그 어떠한 사물에도 구애되지 않는 자에겐 귀신들도 범접할 수 없다. 그의 마음은 공포의 먹구름이 걸리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움 행복이 충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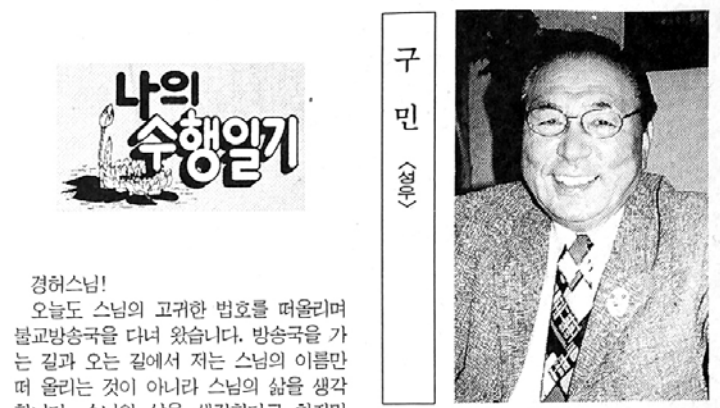
다. 부처님은 묵묵히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가 지쳤을 때, 부처님이 입을 열었다. “만일 누군가가 선물을 거절한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그가 대답했다. “그야 물론 선물하려고 한 사람 것이 되겠소.” 부처님이 덧붙였다. “내가 나에게 욕을 했는데, 내가 그것을 사랑했으니 그 욕은 자네 것이 아닌가. 그 많은 욕을 붙이고 자네, 그대 앞으로 어찌 살아가려나?” 그 불행당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울었다. 그는 다시 돌아와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어느 부처님의 제자가 엄격한 고행생활에 지쳐 다시 쾌락적인 생활로 돌아 가려고 했다. 부처님이 그를 불렀다. “너는 옛날에 현악기를 잘 타지 않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제자가 대답했다.

“줄이 강하게 매어졌을 때, 악기가 제 소리를 내느냐?” “아닙니다.” “줄이 약하게 풀려졌을 때 어때냐?” “역시 제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너무 강하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게 적당히 매어졌을 때 제소리가 내느냐?” “네.” “그래, 영혼도 마찬가지지란다. 너무 힘있게 조이면 관박해지고, 너무 약하면 나약해진다. 그러니, 악기 조율할 때처럼 네 영혼을 가꾸도록 하여라.”

강이 두 왕국의 경계를 이루며 흘렀다. 양국의 농부들은 그 물을 끌어들이며 농사를 지었다. 그러나 어느해 가뭄이 들어 농사지를 물이 모자라게 되었다. 서로 물을 끌어들이려다 시비가 일어났다. 급기야 양편의 농부들이 편싸움을

“자기를 굴복시킨 사람이 승리자”  
“증오보다 더한 악은 없다”  
“악기 조율하듯 영혼을 가꿔라”



경허스님!

오늘도 스님의 고귀한 법호를 떠올리며 불교방송국을 다녀 왔습니다. 방송국을 가는 길과 오는 길에서 저는 스님의 이름만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스님의 삶을 생각합니다. 스님의 삶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보다 많이 생각 하는 것은 저의 살아 온 길과 살아 갈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90년 5월 1일, 그날은 우리나라 불교계에 매우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나라생긴 이후, 아니 부처님 가르침이 울려 퍼진 이후 처음으로 불교방송이 탄생한 날이었습니다. 그 뜻 깊은 날의 영광을 저도 함께 할 수 있었음이 두고두고 자랑스럽습니다. “고승열전”이란 프로그램의 해설을 맡으면서 저는 무척 가슴이 떨리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나라 고승들의 삶을 오늘의 언어로 전한다는 일이 어찌 조심스럽지 않았겠으며 어찌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서울에서 태어난 저는 어릴적 어머니를 따라 태고사를 다녔던 어린한 추억이 불교

구민 송문수



라나 스님의 삶을 이야기로 풀어내며 그 속의 진리를 배우며 보다 완성된 성우로서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저를 더욱 북돋워 주었습니다.

스님은 세계 불교와의 소중한 인연을 맺어 주셨고 우리 시대의 중생들에게 삶의 바른 길을 알려 주셨지만 그 소중한 가르침이 자꾸자꾸 망각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는 “고승열전”을 진행한 이후 살아가는 자세가 조금씩 변화해 가는 것을 느낍니다. 여름철 모기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이거 죄 짓는 것인데’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큰 스님들의 삶을 엿보는 가운데 생겨난 기특한(?) 불심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드라마를 통해 큰 스님들의 살아간 모습

## “오늘도 경허스님 떠올리며 방송”

### ‘고승열전’ 해설하며 삶의 자세 조금씩 변화

에 대한 체험의 전부였습니다. 지금은 조계사로 이름이 바뀐 그 시내 한가운데 절에서의 법당이 나이를 들어가면서 그림자 처럼 따라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향해 무수히 절을 하고 기



과 훌륭한 가르침을 새기면서 매우 당당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법에 어긋나면 꾸지람을 들을 망념일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스님, 저는 다시 오실 경허스님을 기다립니다. 단순한 존경심을 넘어

원의 염주를 굴리던 어머니의 모습도 잊혀지지 않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저와 함께 나이를 먹어 왔던 것입니다.

경허스님, 스님을 처음 만난 그 5월 1일 이후 지금까지 42년의 생애를 드라마로 구성해 진행하면서도 저는 스님을 잊지 못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룬 아침의 가지 소리같이 신선하게 던져 주신 스님을 쉽게 잊어 버린다면 저의 인생 업이 너무도 두렵다는 것이겠지요. 다행히 제게는 현생에서 큰 스님들의 체취를 맡을 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란 수식어를 맡겨 놓더라도 남을 가르치기 이전에 자신을 가르침에 서기발 같았고 가난과 질병에 허덕이는 중생과 한 몸이 되어 보살행을 보이신 스님의 행적을 방송언어로 표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이 넘는 성우 생활의 자만심도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

에서 비롯된 염원은 아닙니다. 무수한 고승대덕들의 삶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뼈를 깎고 피를 흘리는 고행이 그분들을 한 시대의 정신을 이끄는 찬란한 법석이 되게 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다시 그러한 찬란한 법석이 그림입니다. 아니 더욱 그러한 것은 그 법석의 찬란한 광명을 받아 들일 줄 아는 중생들입니다. 삼마절마다 큰 스님들이 주석하시어 우렁찬 사자후를 내려 보내시지만 그 감로법을 마시고 목 축이는 사람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그림입니다. 큰 스님이 없는 시대보다 더 슬픈 것은 부처님과 큰 스님들의 가르침을 외면하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스님, 다시 오시되 한 사람의 몸으로 오시지 말고 수만 수천의 중생 몸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추상같은 수행과 바다같은 보살행의 주인으로 오셔서 불국토를 일깨 주시길 간절히 염원합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들이야말로 인간의 삶을 진리로 이끄는 최선의 윤리인 것이다.

편역 : 김 홍 근  
(외대강사·문학평론가)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발휘되어 현세에 사는 불자들의 만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고 있는”  
신비의 佛탑다라니에 대한 영험록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佛탑다라니의 신비로운 영험력!

- 1) 본회의 불탑다라니에서, 자체에서 약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주는 강력한 힘(기)가 계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 2) 이 힘(기)은 신심깊은 불자들에게는 더욱 강하게 작용하여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 지는 위신력을 발휘하여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변화시킵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불탑다라니를 통해 대인 물속에 힘(기)의 흐름이 갑자기 강해짐을 직접 느낍니다. 이 힘(기)은 사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3개월 정도 물에 계속적으로 방출되면 약한 운기가 강해지고 그로인해 온세가 최상으로 바뀌면서 모든일이 저절로 막힘이 없이 풀려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 3) 그리고 불강경 신탑다라니를 이용하여 인세와 영계에 파장되는 힘(기)의 흐름을 체크할 수 있고 그 강약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인간의 길흉화복까지 판단할 수 있으며, 조상들의 천도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판단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 현재 자기가 원하는 간절할 소원이 이루어 질것인지? ● 조상들의 영기가 천도되었는지? ● 하고자 하는일이 성사될것인지? ● 무슨일을 하면 될것인지? ● 대학 입시에 합격할것인지? ● 어느 대학에 들어갈수 있었는지? ● 현재 살고 있는 병환은 낫을 것인지는? ● 언제까지 아플것인지? 등 어떠한 일든 신탑다라니 안에 적어놓고 힘(기) 테스트를 해보면 이루어 질것은 힘이 나오고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 지는 것은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힘이 나오면 실패율(80-90%)는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힘이 나오지 않을때는 2개월이상 佛탑다라니 힘을 받았던 온세가 바뀌어 이루어 지고 있는 일이 허다합니다.
- 4) 또한 우주공간에는 수 없이 많은 온갖 힘(영)들이 떠돌아 다니면서 이음에서 조물이라도 인연을 맺은 인간의 몸과 영의되고 관념파장을 일으켜 집안에 우환이 몰고 오는 일이 없고 집안에 풍파를 일으킵니다. 이때 불탑다라니를 집안에 소장하거나 몸에 지니고 생활하거나 조상의 묘에 인당시 커드러인 이집 영들이 하나 둘씩 천도되기 시작하면서 100일 정도 지나면 모든 영들이 천도되어 떠나고 그 때부터 집안이 조용해지고 하고자 하는일이 저절로 풀려나옵니다.
- 5) 불탑다라니를 부처님에 대한 진실된 기도와 병행치 않고 단순히 부처님으로만 생각하고 사용하는 분이나 타종교인에게는 영험력이 일어나지 않고 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스님들께 佛탑다라니를 이용한 힘테스트 방법과 처방전이 수록된 스님용 책자와 영험록 책자를 무료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포교차원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어 불심을 길게 하는데 일조하고 재앙과 재난을 예방하여 그것을 피해가고 소멸시켜주는 방편으로 신도들께 사용돼 주신으로서 다소나마 불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 불자들에게 불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 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불탑다라니 조성 경위와 사용방법등이 같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 책만 보셔도 충분히 참고가 되며 스님용 책자 요청은 가능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 경성남포도  
■ 성문문의 : 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각장)  
부설 : 불교바라밀 건강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포 3동 50번지 (한신상가 5동 5층)  
전화 (051) 864-3740  
■ 기타 지역성당 문의 및  
■ 책자신청 : ① 성지관음회 (회장 배민)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0335) 34-9490, 39-1906, 아간(0342) 706-3060

## 불기2541년 한국의 명찰 달력 보급안내

### 나한도

달력크기/26cm x 26 7cm    보급특가 1부당 /1,300원

귀의 삼보하옵고, 저희 감로기획에서는 불기 2541년 정축년 불교달력(한국의 명찰, 나한도)을 기획·제작하여 보급합니다. 전국에 계신 대덕 큰 스님의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7 FAX. (02)738-8682

1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